

SPECIAL ISSUE

#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싸우는 간호사

이명선 · 최명애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명예교수

## 서론

2020년 초부터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1월 30일 코로나19를 국제적인 공중보건비상사태로 선포한 데 이어 3월 11일에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즉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각 국가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치 전시적 상황을 방불케 하는 긴급 사태 속에서 대응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료계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긴급 사태를 지켜 보면서,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돌보는 간호전문직의 철학과 가치와 실천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간호전문직은 24시간 내내 환자의 곁에서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의료전문직으로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환자를 직접 돌보는 간호사들의 경험을 조명하면서 간호의 가치와 실천을 되새기고자 한다.

## 본론

### 1. 나이팅게일 정신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오늘의 간호사들은 간호의 핵심 가치를 현실에 실현했던 영국의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선구자적 모습과 무척이나 닮아 있다. 나이팅게일은 1854년 흑해로 뻗는 러시아의 세력을 막기 위해 영국 등 4개국 연합하여 대항한 크림반도에서의 전쟁(Crimean War)에서 부상자들을 보살피면서 간호의 진가를 확실하게 보여 주었다. 당시 병들

고 부상당한 영국 군인들의 비참한 상태가 연일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나이팅게일은 국가로부터 초청을 받아 크림반도 야전 병원의 현장으로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나이팅게일은 대부분의 사망이 부상 그 자체가 아니라 병원의 부실한 위생 상태와 돌봄 등으로 인한 것임을 알아내고 이들을 개선함으로써 부상병들의 사망률을 42%에서 2.2%로 낮추는 획기적인 성과를 일구어냈다.<sup>1)</sup> 2.2%의 사망률이라는 통계적인 숫자의 이면에는 한 밤중에도 매일 등불을 들고 침대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며 부상병들을 위로하고 지켜준 나이팅게일의 따뜻한 환자 사랑과 관심이 숨어 있다. 나이팅게일은 부상병들 사이에서 “등불을 든 여인”이라 불리었는데, 심지어 일부 부상병들은 “지나가는 그녀의 그림자에 입맞춤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라고 할 정도로 신체적,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상병들에게 나이팅게일은 유일한 희망이요 위로자였던 것이다. 당시 여성의 사회활동이 극도로 제한된 상황 속에서 일궈낸 나이팅게일의 이러한 업적은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추후 현대 간호 전문직의 모태가 되었다. 나이팅게일은 “간호는 직업이 아니고 사명이다”, “간호는 질병을 간호하는 것이 아니고 병든 사람을 간호한다.”라는 명언을 남겼으며,<sup>1)</sup> 이는 현대 간호의 핵심적인 철학과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에도 간호학과와 간호대학에서는 간호의 가장 심오한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는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거행함으로써 간호의 가치를 실생활에 구현하는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

### 2. 코로나19 현장으로 달려간 백의의 천사들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는 전 세계인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Corresponding author: Choe, Myoung-Ae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103 Daehak-ro, Jongro-gu, Seoul 03080, Korea.

E-mail: machoe@snu.ac.kr

- 본 원고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20 (제16호)에 게재된 내용임.

- This manuscript is published in the Annual Report of Professors Emeriti Seoul National University 2020 (Vol. 16).

는 2020년 2월과 3월에 걸쳐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면서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였다. 이러한 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말경부터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볼 간호사를 모집하였다.<sup>2)</sup>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아픈 환자를 돌보는 것을 소명 의식으로 삼고 있던 수많은 간호사들이 앞 다투어 코로나19 현장의 근무를 자원하였다.

‘나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다.’라는 공포에 짓눌리면 결코 코로나19 최전선에 뛰어들 수 없는 일이지만, 3월 한 달간 무려 3,874명이 신청하였다.<sup>3)</sup> 이 숫자는 전국 의료 현장에 있는 간호사 18만 명의 2%에 해당하는데, 무엇보다도 이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코로나19 환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다. 한 간호사는 지원 신청서에 “제가 봉사자에 선발되지 않는다면, 돕고 싶지만 도울 수 없다는 게 제겐 큰 고통이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저를 그곳에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며 현장 근무자로 선택되기를 소원하였다.<sup>4)</sup> 이러한 절규는 환자를 도와야 한다는 간호사로서의 소명 의식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자원자의 특성은 다양하였는데, 이제 막 간호대학을 졸업한 새내기 간호사에서부터 육아휴직 중이던 간호사, 이미 정년퇴임한 간호사, 안식년 중이던 60대의 간호대 교수들까지 코로나 현장에 직접 들어가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을 실천하며 시대적인 소명을 다하고자 하였다. 심지어 뉴질랜드에서 유학 중이던 한 간호사까지도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대구로 달려오기도 했다.<sup>5)</sup> 간호사

관학교를 갓 졸업한 신입 간호장교들도 대구로 향하며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첫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들은 아무리 위험한 상황일지라도 아픈 환자가 있는 곳에 가는 것이 마치 자신의 운명이자 사명이라고 여기었다.

### 3. 코로나19 환자의 전인간호(comprehensive nursing care)

나이팅게일의 정신에 따라 간호사들은 질병이 아니라 인간을 중심으로 한 개별적인 간호제공에 역점을 둔다. 이를 전인간호라고 하는데, 즉, 환자의 질병뿐 아니라 질병과 관련된 신체와 정신과 감정 상태를 총체적으로 돌보게 된다(Fig. 1). 우선 코로나19 진단을 받고 입원격리된 환자들은 다양한 호흡기 증상을 포함한 신체적 문제와 함께 특별한 심리적 어려움도 겪는다.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사실에 대한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불안, 우울, 분노 등 다양한 감정들이 얹히고설키어 환자들은 매우 예민해져 있다. 언제 악화되거나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 속에서 음압격리 병실이라는 좁은 공간에 갇힌 답답함과 가족들의 면회 금지로 인한 사회적 단절은 환자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이렇게 극한 상황으로 내몰린 환자들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뿐이며 그 중에서도 24시간 함께하는 간호사들이 대부분이다.

한편, 간호사들은 코로나19 환자로부터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방호복을 완벽하게 착용해야만 한다. 전신 보호복을 입고 텃신을 신고 장갑은 두 겹으로 끼고 마스크와 함께 보호 안경인 고글까지 써서 온몸을 모



Source: 간호사신문. 울산대병원 코로나19 전사 간호사들. 2020 August 26.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126&idx=25775>

Fig 1. 코로나19 환자와 간호사.

두 가리고 음압격리 병동에서 업무를 수행해야만 한다(Fig. 2). 그런데 이렇게 방호복을 착용한 채 환자를 돌본다는 것은 그야말로 또 다른 전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꼭 막힌 방호복으로부터 몸의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5분 정도만 입고 있어도 온 몸이 땀에 젖고, 고글에는 습기가 차서 시야도 흐려진다. 장시간 방호복을 입으면 더위뿐만 아니라 두통이나 어지럼증에도 시달리곤 한다. 근무 중에는 또한 물도 못 마시고 화장실도 가지 못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들은 적어도 2시간에서 최대한 4시간 동안 시시각각 변화하는 코로나19 환자들을 간호해야 한다. 환자의 신체 상태를 관찰하고 확인할 뿐 아니라, 각종 처치와 투약과 욕창을 막기 위한 환자의 체위 변경, 식사와 대소변 관리, 낙상 등의 안전사고 예방 등 모든 것을 고려한 총체적인 간호(wholistic care)를 제공해야만 한다. 호흡 능력이 떨어져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거나 무의식에 빠진 중환자실 환자들은 더욱 세심한 관찰과 처치가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 19라는 감염병에 걸려 심리적으로 예민해진 환자들의 고통스런 마음을 보듬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역할도 해내야만 한다.

#### 4. 코로나19 간호의 어려움: 체력 소진과 감염의 위험성

코로나19 현장에 자원해서 들어간 간호사와 이미 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들 모두 사망감을 안고 환자 돌봄에 들어갔지만, 막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주를 이루는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상황은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방호복을 입은 채 수행하는 이러한 고강도의 노동으로 인한 체력 소진은 결국 간호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사투를 벌여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곤 하였다. 간호사들은 신체적 소진과 함께 감염의 위험에도 노

출되어 있어 불안하였다. 비록 방호복과 마스크와 고글을 철저하게 착용하고 환자를 간호하더라도, 환자 가까이에서 간호 처치를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가끔씩 환자가 호흡기 증상인 기침과 가래를 쏟아 내기라도 하면 ‘혹시나’ 하는 감염의 염려를 결코 떨쳐버릴 수 없었다. 격리 병동 환자의 간호가 끝난 이후에도 간호사들의 사투는 이어졌다. 환자로부터 오염되고 땀에 흠뻑 젖은 방호복을 벗는 와중에도 조금만 부주의하면 감염이 쉽게 되기 때문에 방호복을 벗는 시간만도 20~30분이 걸리곤 하였다. 실제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9개월 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진은 159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101명이 간호사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체의 63%를 차지하며, 매일 평균 3명의 간호사가 감염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수치이다.<sup>6)</sup> 또한 감염된 의사 수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간호사들은 그 어느 의료인들보다 훨씬 높은 감염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간호사들은 이렇게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 속에서 그동안 겪어 보지 못한 코로나19 환자의 간호를 수행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 이외에도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고강도의 업무와 장시간의 근무로 고통을 받았다. 예를 들면, 중환자실 10개의 병상을 운영하려면 간호 인력이 최소 84명은 필요한데, 환자가 급증하여 병상이 갑자기 채워지면 하루아침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모으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구의 한 병원에서는 145개 병상이 400여 개로 늘어났지만 현장에 간호전문 인력을 즉각 투입하는 것이 어려워, 장시간 근무할 수밖에 없었다. 간호사 2명이 코로나19 환자 20명을 담당하여 돌보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인력 부족과 급조된 근무환경 속에서 간호사들은 적당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고 식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어 극도의 체



Source: 간호사신문. 감천의료원 코로나 최전선 간호사들. 2020 August 26.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126&idx=25774>

Fig 2.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



력 소진과 피로 누적, 그리고 장시간 근무에 따른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 하지만 대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프면 쉬겠다.’라고 말하면 불성실한 간호사로 낙인 찍힐까 봐 두려웠고, 따라서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아파 죽어도 병원에서 죽어야 한다.’는 자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환자를 돌볼 수밖에 없었다.<sup>7)</sup> 근무와 직접 관련된 것 외에도 간호사들은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고립감으로 힘들어 하였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인 경우, 자신의 자녀가 어린이집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다른 학부모로부터 들었을 때 마음의 상처는 매우 컸다. 코로나19 환자를 돌본다는 것이 가족 구성원에게도 고통과 불안을 안겨 주기 때문이었다. 타인의 따가운 시선과 따돌림 이외에도 이들은 상당한 고립감도 호소하였다. 감염의 위험 때문에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가족과 떨어져 병원, 기숙사, 혹은 숙박업소 등에서 기거하며 자가 격리에 준하는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현장 지원 근무를 끝낸 간호사의 경우에도 자가 격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대부분이 주변의 냉대로 인한 실망감과 고립감으로 힘들어 하였다. 초과 근무에 대한 적절한 특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였는데, 이렇듯 경제적으로 불공평한 처우에도 매우 힘들어 하였다.

## 5. 간호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

이토록 어려운 돌봄 상황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준 사람들은 역시 코로나19 환자들이었다. 나이팅게일의 그림자에 입맞춤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였다는 크립전쟁 부상병들의 고백처럼, 코로나19 병실의 환자들, 병실 벽 너

머에 간호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을 얻는다는 고마움의 메시지는 이들의 고통을 일순간에 날려 버렸다. 또한 환자의 상태가 좋아져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가거나 퇴원할 때에는 우리가 환자를 ‘살려냈다’라는 자부심과 함께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더구나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내가 먼저 앞장서야 한다는 애국심으로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원을 결정한 간호사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또 다른 의미를 찾으며 현장 간호에 충실하게 임할 수 있었다.

오랜 마스크와 고글 착용으로 얼굴에 난 상처 자국과 이를 보호하는 밴드는 코로나19 간호사들의 헌신적 돌봄의 징표로 마스크를 타기도 하면서, 외국의 언론에까지 보도되었다. 프랑스 통신사 AFP (Agence France-Presse)는 3월 13일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간호사들이 방호복과 마스크로 인한 상처로 이마와 콧등에 붙인 밴드(반창고)가 명예의 배지가 되었다고 전했다(Fig. 3).<sup>8)</sup>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간호의 숭고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 일반인들이 깊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속에는 간호를 실천하기 어려운 열악한 체제와 상황 속에서도, 신체 간호는 물론 심리적으로 작아지고 약해지고 초라해진 환자들의 마음까지도 보듬으며 고통과 절망에 빠진 환자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희망을 건네준 간호사들의 커다란 용기와 헌신이 고스란히 숨겨져 있는 것이다.

이렇듯 코로나19 대유행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구나!’라는 사명감과 ‘이왕 봉사할 거면 가장 힘들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가고 싶다’는 간호사들의 소망은 간호의 가장 의미 있는 본질을 여실히 보여 준다. 나이팅게일의 정신과 함께 한 코로나19 간호사들의 업적은 무엇



Source: 간호사신문. [AFP] 간호사 얼굴의 밴드 '명예의 배지' 되다. 2020 March 16.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124&idx=25013&intPage=25>

Fig 3. 간호사 얼굴의 밴드.

보다도 간호란 ‘고통을 보다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숭고한 직업’임을 드러내 주고 있다.

## 6. 세계 간호사들의 활약과 기여에 대한 폭발적 호응과 격려

코로나19 현장에서 헌신하며 열정을 바치고 있는 국내외 간호사들을 위한 전 세계적인 호응과 응원은 대단하다. 특히 2020년은 세계보건기구가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을 맞아 2019년에 ‘2020 세계 간호사의 해’로 지정한 특별한 해이기도 하다.<sup>9)</sup> 이는 나이팅게일 정신이 간호의 가치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중심으로 간호사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간호사 없이는 보편적인 건강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과 함께 인류의 건강을 위해 공헌해 온 간호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특별한 해에 코로나19라는 대유행을 맞아 전 세계는 간호전문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간호사들의 역할과 기여에 응원과 찬사를 보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등 건강 관련 조직의 지도자들은 물론 각 국가의 정치지도자들, 프란시스코 교황을 포함한 종교계 인사들, 그리고 일반 서민 등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코로나19와 싸우는 간호사들의 노력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고 있다. 우리의 삶 속에 숨겨진 의미와 가치들을 찾아 표현해 내는 예술가들의 응원도 예외는 아니다. 한 예로, 영국의 뱅크시라는 예술가의 작품(Fig. 4)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간호사들을 응원하기 위해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고 명명한 그림 한 점을 영국의 한 종합병원의 응급실에 걸어 놓고 사라졌다.<sup>10)</sup> 그 그림에는 한 소년이 인류를 구하기 위해 하

늘을 나는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과 같은 슈퍼히어로 대신에 망토를 입고 하늘을 나는 간호사 인형을 손에 번쩍 들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간호사들의 헌신은 또한 국가를 향한 애국심의 소유자로도 표출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환자 사랑과 나라 사랑으로 무장된 간호사와 간호장교들을 응원한 바 있듯이, 이탈리아에서도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에 대한 감사로 제작된 “이탈리아를 품은 천사”라는 작품이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Fig. 5).<sup>11)</sup> 이 그림은 방호복에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천사의 날개를 단 의료인이 이탈리아 지도를 품에 안고 있는 그림으로서, ‘세계 간호사의 날’을 축하하며 게시되기도 하였다.

## 결론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서 우리는 간호가 지닌 숭고한 사회적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환자를 지키기 위한 간호사들의 피나는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간호의 가치에 가중치가 부여되는 특별한 상황을 지켜보았다. 또한 간호사들이 정신적으로 더욱 단단해 질 수 있는 원동력인 나이팅게일 정신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간호의 가치를 드높이며 이를 실천하는 수많은 간호사들을 통해 간호전문직의 가치와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 글을 통해 코로나19 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 간호에 헌신하고 있는 2,000만 명에 달하는 전세계의 간호사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간호사들의 이러한 노력과 헌신을 지나치게 당연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Source: 서울신문. 슈퍼맨보다 의료진... 英 응급실 밝힌 '게임 체인저.' 2020 May 7.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508016001>

Fig 4. 게임 체인저.



Source: 간호사신문. 이탈리아를 품은 천사 ... 코로나19 최전선 간호사에 감사. 2020 May 18.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124&idx=25231&intPage=12>

Fig 5. 이탈리아를 품은 천사.

‘2020 세계 간호사의 해’를 맞은 올해 5월 12일 ‘세계 간호사의 날’에는 국제간호사협회가 국제적십자연맹 등과 함께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세계 간호사들을 격려하면서 이들의 안전이 질병 극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듯이<sup>12)</sup> 모든 간호사들이 인력과 장비의 부족으로 인한 위협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코로나19에 대한 의료 대응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백신의 개발과 활용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간호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간호의 숭고한 가치와 이를 위한 간호사들의 헌신적인 실천은 코로나19 환자뿐 아니라 모든 환자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 REFERENCES

1. Lee YB. 간호사. Seoul: Soomoonsa; 1987. p. 1-336.
2. Jeong KS. [코로나19]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환자 치료' 간호사 모집 [Internet]. Seoul: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2020 [cited 2020 Feb 27]. Available from: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124&idx=24956&intPage=28>
3. Yang MH. "3월 대구·경북 코로나19 현장 지원 간호사 3874명" [Internet]. Seoul: News The Voice for Healthcare; 2020 [cited 2020 April 10]. Available from: <https://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77>
4. Park SJ. "부디 저를 그곳에 보내주세요"...대구·경북 의료 파견 간호사들의 '지원서' [Internet]. Seoul: Chosun Biz; 2020 [cited 2020 March 23]. Available from: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3/2020032303256.html](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3/2020032303256.html)
5. Jo YJ. "코로나19 비상에 '나 하나라도 보태야' 달려왔죠" [Internet]. Seoul: Incheon Today; 2020 [cited 2020 May 4]. Available from: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697>
6. 간호사 신문. [코로나 현장사진-(27)] 울산대병원 코로나19 전사 간호사들 (1) [Internet]. Seoul: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2020 August 26. Available from: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126&idx=25775>
7. 간호사 신문. [코로나 현장사진-(26)] 김천의료원 코로나 최전선 간호사들 [Internet]. Seoul: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2020 August 26. Available from: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126&idx=25774>
8. Hwang SY. 코로나 사태 9개월간 간호사 101명 감염돼...일주일에 3명꼴 [Internet]. Seoul: JoongAng Ilbo; 2020 [cited 2020 October 4]. Available from: <https://news.joins.com/article/23885483>
9. Han JR. 원내소속 코로나 간호사 93.8% '특별수당 받지 못해'...파견간호사와 형평성 논란 [Internet]. Seoul: Daily Mediparm; 2020 [cited 2020 Jun 12]. Available from: <https://www.dailymediparm.com/news/articleView.html>

- ?idxno=51480
10. Jeong KS. [AFP] 간호사 얼굴의 밴드 '명예의 배지' 되다 [Internet]. Seoul: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2020 [cited 2020 March 16]. Available from: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124&idx=25013&intPage=25>
  11. Jeong KS. 세계보건기구 '2020 세계 간호사의 해' 지정 [Internet]. Seoul: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2019 [cited 2019 December 30]. Available from: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122&idx=24861&intPage=1>
  12. Kim MS. 슈퍼맨보다 의료진... 英 응급실 밝힌 '게임 체인저' [Internet]. Seoul: Seoul Shinmoon; 2020 [cited 2020 May 7]. Available from: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508016001>
  13. Choi YJ. 이탈리아를 품은 천사 ... 코로나19 최전선 간호사에 감사 [Internet]. Seoul: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2020 [cited 2020 May 18]. Available from: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124&idx=25231&intPage=12>
  14. Jeong KS. "코로나19 최전선 간호사 안전 보장" 촉구 [Internet]. Seoul: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2020 [cited 2020 May 14]. Available from:  
<http://www.nursenews.co.kr/main/ArticleDetailView.asp?sSection=124&idx=25212&intPage=20>